

월요광장

전쟁만은 절대로 안 된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해가 바뀌고 달도 바뀐다. 병오년이 시작되어 달이 바뀌었지만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몇 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선량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다.

그곳 말고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무거운 인간의 목숨이 전쟁이라는 악행으로 무참히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손 쓸 방도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뜻남을 한탄할 때가 가장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 6·25 한국전쟁을 만났었다. 어린 나이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제대로 느끼진 못했지만 당시의 분위기로 불안과 공포에 떨던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풀을 베다가도 눈독에 의지해 풀을 숨기던 생각은 영원히 잊혀지 않는다. 전쟁은 그렇게 무서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이다.

그렇게 큰 죄악이 오늘 같은 문명의 세계에서 사라질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인간으

로서의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은 바보스럽고 이렇게 인간이 무력하다는 말인가. 정말로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한가.

윤석열 내란수괴의 수사와 재판을 보면서 모든 죄악에 분노와 절망을 갖지 않을 때가 없으나, 유독 북한을 유인하여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계엄의 명분을 찾으려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는 심장이 멈추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계엄의 명분을 쌓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칙결하고 영구집권을 계획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망나니들'임에 차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그런 짓까지 하려고 했다니 도대체 이들을 인간이라고 말이라도 하겠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 남북이 적대관계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상존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만은 막고 화해와 평화로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바라는 우리 국민들. 소원이야 통일이지만 당장에 통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외교정책이 그렇게 간절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데 그런 염원에 역행하는 일은 참으로 큰 죄악이다. 절대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전쟁을 막으려는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역력히 알아볼 수 있다. '두 개의 국가' 이건, 상호 적대국임을 선언했건, 남한과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등 온갖 고약한 말이 오고 가더라도 전쟁만은 절대로 막아내는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 손바닥이 땅도록 빙고 빙어서 북한을 설득하고 아부해서라도 결단코 전쟁은 막아야 한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일랑 모두 팽개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호 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렀던 무모한 도박 같은 것에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라도 절대로 전쟁은 막아야 한다.

6·25, 수백만의 인명이 죽어갔고 조국 산하가 폐허의 별관으로 변했던 그런 전쟁. 다시는 그런 전쟁은 이땅에서 사라지는 외교정책을 세워야 한다. "북진 통일이니, 멸공 통일이니, 흡수통일이니, 선제공격이니" 등등의 해서는 안 될 구호를 외치며 전쟁도 불사한다면 보수정권 등의 정권 연장 계획에서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화해와 협력에 의한 평화적 통일 아니고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 아무리 공산당이 싫고 북한이 미더라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통일을 달성할 길은 이제 사라졌다. 상호 이해와 협력, 화해와 평화의 결심에서 오는 통일만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찾기보다 어렵다"던 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권력의 영속화 수단으로 일으키는 계엄이나 전쟁만 없으면 우리 국민 모두는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세력을 뿐리 뽑고 전쟁을 영원히 추방한다면 그때는 'K-민주주의', 'K-문화'로 세계의 유통 국가로 도약할 것이 분명하다.

社說

알맹이 빠진 통합특별법 후속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아쉬움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과 정부 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정 특례조항 등 암매가 빠진 법안이라는 반응이 많아 후속 조치로 지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숙고 끝에 마련한 특별법 수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등 파격적인 요구가 담겨 지역민들은 반신반의 속에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0일 발의된 최종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요구는 아예 없고 전남광주특별시의 항구적인 존립 요구인 재정 특례조항조차 빠져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정부 부처 이전 요구야 허망한 면에 서 힘들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20%, 부가가치세의 2.2%, 법인세의 2.2% 등 수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국세의 지

방세 이전 요구가 아예 빠진 것은 지역 정치권의 용도사미식 대응이 빚은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통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조항이 삭제된 것도 정부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2월 한 달간 국회에서 특별법안 통과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지역 정치권은 희망사항을 담기 보다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재정 특례조항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 등 핵심 협약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통합특별법 출범 전부터 전략에서 실패한다는 지역 여론에 맞닥뜨릴 우려가 크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안보다 지역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남은 기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성과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가 형평성 지향한 5·18 위자료 판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원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형평성 있게 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정 장관은 최근 광주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 "5·18 관련 국가배상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해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5·18 피해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 신분으로 의견을 낸 것인 만큼 정부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다.

의견서 제출은 5·18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광주 법원과 서울 법원의 판결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5·18 당시 계엄군의 구타로 뚝딱 14등급을 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냈는데 광주고법은 위자료로 500만원을, 서울지법은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해 6배나 차이가 났다. 5·18 피해 사망자

에 대한 위자료도 광주고법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서울지법은 4억원을 산정한 일도 있었다.

같은 피해에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 정장관이 5·18 위자료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차원이다. 그래서 5·18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상 서울 법원의 판결에 맞춰 위자료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2·3 내란 및 김건희 관련 재판에서 들쭉날쭉한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의 법감정과 다르다는 반응이 많다.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양형 기준이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 기준을 크게 벗어나면서 논란이다.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은 5·18 위자료 판결에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無等鼓

며칠째 강추위를 동반한 동장군 기세가 만만치 않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시기가 대한(大寒)과 입춘(立春) 사이로, 1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무렵이 요즘이다. 마지막 절기이자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 추위가 올해는 특특히 이름값을 한 걸 보면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절기 과학'은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길을 활도라 한다. 15도씩 둘 때마다 하나님의 절기와 조우하게끔 돼 있다. 봄의 시작은 입춘, 여름은 입하, 가을은 입추,

겨울은 입동이라 하는데 계절의 사립일(四立日)은 여느 절기와 달리 의

미가 남다르다. 특히 사계절 관문 가운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절기로 알려져 있다.

올해 입춘은 모래인 4일이다. 음력으로 설달에 들어가 정월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음력으로 설달(12월) 열이래(17일)가 입춘이다. 절기상 봄에 들어섰지만 음력으로 아직 12월이라 날씨가 추울 수밖에 없다. 입춘이 다가오면 우리 조상들은 입춘첩(立春帖子)을 붙이며 봄 맞을 준비를 했다.

이해로 난 나무가 되어 보려 한다.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양상한 것 같지도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거기서 먼저 아이와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나 내 등짝에 찻 달라붙어 "배고프다."며 또 칭얼거리다 잠들었으면 좋겠다.

박수근의 그림에 공감하는 것은 순전히 그 희뿌연 배경 때문인지 모른다. 어찌면 별이 된 생동생이 보고 싶은지 모른다. 이제 그 감나무는 없다. 도회지로 진학과 입대, 결혼과 취업이 쓰촨같이 지나갔다. 나는 그 나무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 사이 감나무도 사라졌다.

내가 그 나무를 다시 찾은 건 퇴직 무렵이었다. 문득 외로웠다. 그때 그 심복(心木)이 불쑥 내게 다가왔다. 다음날, 시골집 뒤뜰에 달려왔다. 감나무가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었다. 눈부시게 흥旺盛한 하늘은 어디 가고 무심한 하늘만 펼쳐져 있었다. 낯별이 파란 구름 속에서 반짝 빛났다. 사라졌다. 그 별이 문득 그리웠다.

지금 날 시골집 마루에 앉아있다. 햇살도 내 곁 마루

은 모든 운이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다.

24절기는 명절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의미있는 날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 집행을 금할 정도로 24절기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특히 봄의 시작인 입춘을 '진정한 새해'의 기점으로 봤는데 그날의 기운이 한 해의 모든 운을 좌우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올해 입춘은 여느 해보다 특별하다. 지난해 입춘 무렵만 해도 윤석열 내란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시절이었다.

윤석열의 무도와 무법, 무지와 무모함이 잉태한 12·3 내란을 극복하기까지 지난한 시간과 인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끝내 봄은 도래했고 우리는 다시 입춘을 기다리고 있다.

이때면 조선시대 문인 신호이 노래했던 '매일상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이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매하는 한생평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그 뜻이 다함 없이 다가오는 것은 입춘을 고 앞에 둔 때 문인 듯하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부 220-0649 | 대표 FAX 222-4918 | 경영자 원국 220-0515 | 문화사 입국 220-0541

편집국내부 220-0634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편집국내부 220-0648 | 예향부 220-0692 | 기획 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편집국내부 220-0664 | 여론 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편집국내부 220-0680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국 220-0536 | 서울지 02-773-9331

편집국내부 220-0680 | 디자인국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박용수
동신여고 교사·화순문화 편집장

박수근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이를 업던 아련한 추억이 양상한 나목과 함께 떠오른다. 나목 너머로 흘러 넘는 스냅은 회색빛 배경도 오버랩된다.

아이가 아이를 보던 시대, 유년의 기억과 그림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일 것이다. 흥역으로 아이를 자주 잃던 때였다. 하교해서 집에 오면 부모님은 일 나가고 아무도 없었다. 나를 반기는 것은 감나무뿐이었다. 난 책가방을 던져놓고 허겁지겁 뒤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쪼르르 감나무에 올라서 우적우적 떠밀었다. 그러면서 시나브로 감의 단맛이 잉크처럼 온몸으로 번졌다.

나머지 시간은 아이 보는 일이었다. 아이는 배고프다며 자주 울었다. 잠시 아이를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왔다. 그리고 아이 입에 물렸다. 아이는 감을 먹으려고 애를 썼지만 껌질이 두꺼웠는지 떨었는지 먹질 못했다. 감을 던진 아이는 올다가 지쳤는지 조용했다. 등 뒤를 보면 내 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는 씩씩 잠이 들어 있었다.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간혹 동네를 구경했다. 멀리 우뚝한 신목(神木), 당산나무가 보였다. 영성이 집도

에 앉아 조용히 졸고 있다.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간다. 그리고 별이 된다는 걸 안다. 그린 것들은 모두 하늘로 가서 반죽된다. 지금껏 너무 바빠 살았다. 아니 명예, 금전, 직위를 찾아 헤맸다. 아파트고 자동차고 돈을 찾아 밤낮으로 떠돌았다. 그런데 결국 헛것이었다. 신기루 같은 삶. 지금껏 영혼 없이 살았음을 이제야 안다. 세속의 단맛, 그 공허한 것들만 쫓았다. 무용한 삶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외로울 때 내 곁에 있는 것은 그 신목(信木)뿐이다.

이제라도 난 나무가 되어 보려 한다.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양상한 것 같지도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거기서 먼저 아이와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 만나 내 등짝에 찻 달라붙어 "배고프다."며 또 칭얼거리다 잠들었으면 좋겠다.

박수근의 그림에 공감하는 것은 순전히 그 희뿌연 배경 때문인지 모른다. 어찌면 그 배경 색깔이 풍경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알 듯 모를 듯 허미한 색깔,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색이 아닐까.

누구나 마음 깊이 사랑 나무, 가족 나무, 인생 나무 한 그루씩 지니고 살아간다. 회색빛 박수근의 그림 한 점이 나를 위로해 준다. 우울한 기억을 우울한 색깔로 치유하는 기묘한 힘이 그의 그림에 들어있는 것 같다.

글이든 그림이든 이리 위로를 주어야 좋은 글이고 좋은 그림이다. 배고프다면 아이의 체온이 등으로 느껴진다. 회색빛 그림을 보는 동안, 어느새 내 몸에도 그의 희뿌연 나무들이 들어와 뿌리를 내린 모양이다.